

## 보육교사의 반성적 저널을 통해 나타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분석 : 그림책 활동을 중심으로\*

서혜성\*\* 고민경\*\*\*

Analysis of Children's Social Efficacy Appearing through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Reflective Journals  
: Focusing on Picture Book Activities  
Seo, Hye Sung Koh, Min Gyeong

본 연구는 그림책 활동을 중심으로 보육교사의 반성적 저널쓰기를 통해 나타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A시에 위치한 G어린이집 만 3, 4, 5세반 교사 3명과 유아 47명이다. 교사들은 20회기에 걸쳐 유아들과 그림책 활동을 실시하면서 매회기 반성적 저널을 작성하였다. 수집된 반성적 저널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요인인 정서성, 정서조절, 대인관계기술, 사회적 지식이해에 따른 저널을 분류, 텍스트 내용을 추출하여 질적으로 해석 및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첫째, 유아들은 자신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출하였으며, 이러한 정서성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배워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들은 공감과 감정이입으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들은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통해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대인관계능력을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아들은 친구들을 사회적 구성원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격려하며 변화해 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반성적 저널쓰기, 사회적 유능감, 그림책 활동

\* 본 연구는 숙명여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였음.

\*\* 제1저자 : 안산 꿈동산 유치원 원장, jchs0313@hanmail.net

\*\*\* 교신저자 : 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시간강사, hmms0717@hanmail.net

## I. 서론

보육현장의 모든 활동은 교사와 유아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적 활동이다. 교사는 다양한 경험과 교실에서의 사건 해석을 통하여 교수 실제와 자신의 지식 구조를 연결시켜 이해하는 실천적인 전문지식을 만들어가야 한다. 교사들의 실천적 지식형성 능력은 교사가 된 이후에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는 실천적인 지식형성이 교수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현장에서의 교수경험이 실천적 지식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이은화, 배소연, 조부경, 2000). 실천적 지식은 반성적 사고를 통해 전문적 자질과 능력을 기르며, 이러한 교사의 전문성은 결국 보육의 주체자이며 학습자인 유아의 발달과 보육의 질적 수준에 반영된다.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역동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복잡한 과정이므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교육의 방향도 실천적 지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문인으로서의 능력을 신장하여 유아들의 교육활동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유아교사의 반성적 사고와 실천적 지식형성을 통한 전문성 신장 방법에는 저널쓰기, 다양한 이야기쓰기, 학급연구, 동료장학, 포트폴리오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활용이 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소개되고 활용되고 있는 것이 저널쓰기이다(박은혜, 1999). 저널쓰기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들은 것을 기술하면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느낌을 효율적인 수단으로 전환하여 자신의 반성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이영석, 이세나, 2004),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다(박은혜, 1999; Bain, Ballantyne, Packer & Mills, 1999; McAlpine, 1992).

Kerka(1996)에 의하면 저널쓰기는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교사의 반성적 사고 능력을 쉽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자신의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저널쓰기는 개인의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교사의 전문적인 성장을 개인적인 수준에서 점검하는 과정이다(박은혜, 1999). 저널쓰기에서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해석을 하는 개인의 관점은 그것이 유아를 가르치는 전문성과 연결될 때 더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저널쓰기는 교사로서의 질적 수준 향상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Surbeck & Han, 1993).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하여 반성적 사고 및 저널쓰기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반성적 사고 경험에 관한 연구(석은조, 2006; 이영석, 이세나, 2004; 임경심, 2009)와 반성적 사고와 교수행동 및 발문개선에 관한 연구(성은영, 2006; 한수란, 황해익, 2007)로, 이 연구들은 교사의 반성적 사고 경험이 교사의 반성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발문과정, 교수행동, 교육신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부분이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양적 연

구들이다. 질적 연구로는 유아교사의 반성적 정서 저널쓰기에 관한 의미 탐색(안혜준, 2010), 초임교사의 반성적 저널쓰기 경험의 의미(이완희, 2008)가 있으며 이 연구들은 교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로 교사의 반성적 사고에 의한 저널쓰기를 통해 유아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한편 그림책은 문학성을 갖춘 간결한 글과 예술성을 갖춘 그림이 조화를 이루며 이야기를 엮어가는 책으로, 높은 질의 뛰어난 예술적 영상과 문자언어를 통해 그림책을 이해하고 느끼도록 할 뿐 아니라, 시각적으로 이미지화 된 그림 언어를 통해 유아에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이우영, 2007). 그림책은 자신이 체험하지 못한 수많은 현상과 인간의 내면세계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주변 세계를 탐색하고 경험을 확장해 나가며, 삶의 의미와 지혜를 터득하게 하기 위한 간접체험을 제공해 주는 가장 좋은 학습 매체이다(김경중, 2003).

좋은 그림책의 경험은 유아의 듣기와 말하기, 읽고 쓰는 언어발달의 자연스러운 기회를 제공하며 의사소통능력을 효율적이고 자연스럽게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 해준다(Schickedanz, 1990). 이렇게 그림책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게 하는 매개물이 되어, 유아가 사회적으로 유능한 대인관계능력을 나타내는데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은 언어를 통해 표현되며(Cassidy, Werner, Rourke, Zubernis & Balaraman, 2003),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하는 유아들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한 것(Cole, Usher, & Cargo, 1993)으로 보고하고 있기에 그림책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지하는 능력인 정서지능이 대인관계능력을 말해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Austin, Farrelly, Black & Moore, 2007; Brackett & Mayer, 2003). 유아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 측면인 정서성은 사회적 유능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인이 되며,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사회적 상황과 요구에 적합하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여 표현하는 정서조절능력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정서지능이 뛰어난 유아라 할지라도 또래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는 힘들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고하는 능력을 문제해결 능력이라고 하며, 이것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이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인관계기술이다(Katz & McClellan, 1997). 유아기 사회적 관계 경험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유아기에 획득한 사회적 능력은 성장한 이후 사회적인 성공과 실패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Hartup, 1991). 유아는 책, 교사의 이야기, 또래관찰, 모방 등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와 상호작용하면서 관련된 사회적 지식을 얻으며, 이러한 사회적 지식이해는 유아가 참여하고 있는 집단의 주된 친사회적 규칙이나 사회적 규준을 인지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또래와의 활동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게 된다.

Lafreniere와 Dumas(1995)는 사회적 유능감을 사회적 기술을 포함하는 사회 정서적인 적응 능력으로, Pellegrini와 Bjorklund(1998)는 유아가 자신의 주변 환경을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차원을 통합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유능감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정서와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인 정서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로 유능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지식이나 의사소통기술과 대인관계기술과 같은 사회·인지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의미로 보고 있다.

최근의 그림책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 문학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언어표현, 쓰기능력, 정서지능에 영향을 주는 연구(김중순, 2012; 염연정, 2009; 오운주, 2009; 이찬숙, 조경선, 2011)로서 대부분이 양적연구이다. 그림책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적 유능감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교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인 반성적 저널쓰기를 통해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그림책 활동을 중심으로 반성적 저널을 통해 유아가 자신의 정서성이나 의사표현, 대인관계형성의 필수 요인인 정서조절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사회적 지식이해를 통해 문제해결 방식을 어떻게 배워 나가는지, 사회적으로 유능한 대인관계기술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사회적 유능감의 구성요인을 정서성, 정서조절, 대인관계기술, 사회적 지식이해로 분류하여(이혜원, 2005) 살펴보고자 한다. 반성적 사고경험인 저널쓰기는 언어적 표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술적 탐구방법(narrative inquiry)이기에 저널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질적으로 해석, 분석하고자 한다.

교사의 반성적 저널쓰기는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교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며, 교육현장에서 이론과 실제의 괴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사 자신들에게 실천적 지식 습득의 자신감과 함께 교사와 유아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그림책 활동은 보육기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유아를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과 영유아들의 언어·인지 및 사회·정서발달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그림책 활동을 중심으로 교사의 반성적 저널을 통해 나타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어떠한가?’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A시에 위치한 G어린이집 교사 3명과 유아 47명으로 만 3, 4, 5세 담임교사와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G어린이집은 만 1세 3반, 만 2세반, 만 3세반, 4세반, 5세반이 각각 2개 반으로 총 11개 반, 14명의 교사가 있다. 본 연구는 만 3, 4, 5세반의 교사와 해당반의 유아를 선정하였다.

Dewey(1986)는 반성적 사고과정에 영향을 주는 교사요인의 세 가지로 새로운 개념을 탐색하려는 열린 마음가짐, 문제 상황에 집중할 수 있는 진실한 태도, 교사 자신의 신념을 통합하며 자신이 배운 것들의 의미를 활발하게 탐색하도록 노력하는 책임감을 들었다. Dewey의 관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열린 자세와 진실한 태도, 책임감을 갖고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교사, 반성적 저널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저널쓰기에 동의한 만 3세 1반, 만 4세 2반, 만 5세 1반 교사가 연구대상 교사로 선정되었다. 연구대상 유아는 연구대상 교사가 담임으로 있는 유아들의 학부모에게 연구목적과 내용, 시기 등에 대한 연구동의서를 서면으로 전달받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교사와 유아는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연구대상 교사

구 분	담임교사	학력	경력
연구교사	만 3세 1반 교사	전문대학 졸	2년
	만 4세 2반 교사	4년대학 졸	3년
	만 5세 1반 교사	전문대학 졸	7년
계		3 명	

<표 2> 연구대상 유아

구 분	연령	남	여	계
연구유아	만 3세 1반(A-3-1) 유아	8	7	15
	만 4세 2반(B-4-2) 유아	9	6	15
	만 5세 1반(C-5-1) 유아	9	8	17
계		26	21	47

## 2. 연구도구

### 1) 교사의 반성적 저널

본 연구는 그림책 활동을 중심으로 교사의 반성적 저널을 통해 나타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20회기의 그림책 활동에 대한 매회기 기록한 반성적 저널과 매주 1회 전체 활동에 대해 기록한 반성적 저널 총 88부, 교사의 수업 녹화 비디오 30개, 그에 따른 전사자료 60부를 연구도구 및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반성적 저널쓰기를 위해서는 유아들과의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하기에 최대한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 연구자는 연구대상 교사에게 반성적 저널쓰기의 개념과 의의, 저널쓰기 방법의 과정, 저널의 내용을 기록하는 순서에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 사전에 2회 총 6시간 특강을 실시하였다.

### 2) 그림책 활동

본 연구 도구인 그림책은 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

활동자료집의 주제와 관련되어 소개된 그림책과 사단법인 어린이 도서 연구회의 어린이 권장 그림책 목록에 실린 유아용 그림책을 연령별 주제에 맞추어 선정하였다. 어린이 도서 연구회의 그림책 목록은 연령별 유아의 발달수준과 유아교육과정의 영역별 목표를 근거로 유아교육과 문학을 전공한 교수 4인에 의해 추천되어 구성되었다.

선정된 그림책에 따른 활동은 보육과정의 연령별 보육프로그램과 삼성어린이개발센터 프로그램, 정보센터프로그램, 어린이 도서연구회의 그림책 활동프로그램을 참고로 연구자와 G어린이집 교사들이 계획, 수정, 보완 검토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다.

연령별, 주제별 20회기 그림책 및 활동 목록은 <표 3>, <표 4>, <표 5>와 같다.

<표 3> 만 3세 주제별 20회기 그림책 및 활동 목록

차 시	주 제	그림책 제목	활 동 명
1회 2009. 7. 22(수)	여름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빨래를 널어보기
2회 7. 24(금)	여름	비오는 날 생긴 일	빗방울 접기
3회 8. 11(화)	탈것	구리와 구라의 헤엄치기	바다 속 동물 상상하여 그리기
4회 8. 13(목)	탈것	동강의 아이들	엄마 연상하여 그림 그리기
5회 8. 18(화)	탈것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나	보물찾기
6회 8. 21(목)	탈것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내 머리 위에 똥이 떨어진다면? (표정그리기)
7회 8. 25(화)	탈것	내 귀는 짹짹	귀, 눈, 코, 입 글자 따라 써 보기
8회 8. 28(금)	탈것	룻구멍 이야기	o, 0 에 연상되는 그림 그리기
9회 9. 1(화)	숲과 나무	까만 네리노	나의 장점 그려보기
10회 9. 4(금)	숲과 나무	색깔을 훔치는 마녀	비밀그림그리기
11회 9. 8(화)	숲과 나무	끝없는 나무	종이 찢어 붙여 나무 꾸미기
12회 9. 9(수)	숲과 나무	괴물들이 사는 나라	괴물들이 사는 나라 상상하여 그림그리기
13회 9. 15(화)	숲과 나무	엄마 곰 아빠 곰 아기 곰	‘크다, 작다’ 에 대해 알아보기
14회 9. 16(수)	숲과 나무	약수터 가는 길	가을에 볼 수 있는 것 찾기
15회 9. 22(화)	숲과 나무	까치와 소담이의 수수께끼	나무의 사계절 책 만들기
16회 9. 23(수)	가을	짚	짚으로 만든 옛날 물건과 오늘날의 물건 구분하여 선긋기
17회 9. 29(화)	가을	술이의 추석 이야기**	같은 단어를 찾아 오려 붙이기
18회 10. 1(목)	가을	한지들이**	한지에 먹물 그림 그리기
19회 10. 9(금)	가을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할머니를 도와 드린 사물들 이름 따라 써보기
20회 10. 12(월)	건강한 몸과 마음	세종대왕	나의 이름 써보기

※ 책 제목의 \*\*표시는 보육활동자료집에서 선정하였음

<표 4> 만 4세 주제별 20회기 그림책 및 활동 목록

차 시	주 제	그림책 제목	활 동 명
1회 2009. 7. 22(수)	나와 가족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책 표지 모방하기
2회 7. 23(목)	나와 가족	비 오는 날 생긴 일	등장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3회 8. 11(화)	나와 가족	구리와 구라의 헤엄치기	헤엄치기 신체표현
4회 8. 13(화)	나와 가족	동강의 아이들	대칭그림 완성하기
5회 8. 18(화)	건강한 몸과 마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나	소중한 나 연상단어쓰기
6회 8. 20(목)	건강한 몸과 마음	누가 내 머리에 똥 샀어?***	변과 소화과정에 대해 알기
7회 8. 25(화)	건강한 몸과 마음	내 귀는 짹짹	이목구비 표현하기
8회 8. 28(금)	건강한 몸과 마음	콧구멍 이야기	향기 작은 책 만들기
9회 9. 1(월)	숲과 나무	까만 네리노	우리는 모두 친구
10회 9. 4(금)	숲과 나무	색깔을 훔치는 마녀	무지개 글자 만들기
11회 9. 8(화)	숲과 나무	끝없는 나무	나무 속 세상
12회 9. 9(수)	숲과 나무	괴물들이 사는 나라	상상 속 괴물 이름 짓기
13회 9. 15(화)	가을	아빠 곶 엄마 곶 아기 곶	크기를 나타내는 단어 알아보기
14회 9. 16(수)	가을	약수터 가는 길	동물 묘사 그림
15회 9. 26(월)	가을	까치와 소담이의 수수께끼 놀이	계절에 따른 의성어 의태어
16회 9. 27(화)	가을	짚	짚으로 만든 옛날 생활용품
17회 9. 29(화)	우리나라	술이의 추석 이야기**	추석놀이
18회 10. 1(목)	우리나라	한지놀이**	한지의 쓰임새
19회 10. 8(목)	우리나라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동극
20회 10. 12(월)	우리나라	세종대왕	세종대왕의 업적

※ 책 제목의 \*\*표시는 보육활동자료집에서 선정하였음



<표 5> 만 5세 주제별 20회기 그림책 및 활동 목록

차 시	주 제	그림책 제목	활 동 명
1회 2009. 7. 22(수)	물과 우리생활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엄마**	책속의 단어 연상하기
2회 7. 23(목)	물과 우리생활	비오는 날 생긴 일	등장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3회 8.12(수)	여행을 떠나요	구리와 구라의 해엄치기	지시어 써보기
4회 8.14(목)	여행을 떠나요	동강의 아이들	연결그림에 대한 생각 모으기
5회 8. 18(화)	건강한 우리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나	내가 생각하는 보물나열하기
6회 8. 20(목)	건강한 우리들	누가 내 머리에 똥 샀어?***	등장인물 살펴보고 동극해보기
7회 8. 25(화)	건강한 우리들	내 귀는 짹짹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8회 8. 28(금)	건강한 우리들	콧구멍 이야기	몸의 기관과 하는 일
9회 9. 1(화)	나무와 숲	까만 네리노	주,원,문,해 알아보기
10회 9. 4(금)	나무와 숲	색깔을 훔치는 마녀	색깔이 없다면 (가상하기)
11회 9. 8(화)	나무와 숲	끝없는 나무	또 다른 책을 구성해 보아요
12회 9. 9(수)	나무와 숲	괴물들이 사는 나라	내가 만약 주인공이 된다면?
13회 9. 16(수)	나무와 숲	아빠 꿈, 엄마 꿈 아기 꿈	크기 비교하여 문장 만들기
14회 9.18(금)	나무와 숲	약수터 가는 길	의성어, 의태어 분류해보기
15회 9. 23(수)	나무와 숲	까치와 소담이의 수수께끼 놀이	달력 구성하기
16회 9. 25(금)	우리나라	짚	짚의 특성과 활용방법알기
17회 9.30(수)	추석(한가위)	술이의 추석이야기**	추석의 의미 알아보기
18회 10. 1(목)	우리나라	한지돌이**	한지 이야기 책
19회 10. 7(수)	우리나라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우리음식, 도구 흉내 내는 우리말 알아보기
20회 10. 9(금)	우리나라	세종대왕(위인)	위인을 알아보고 자음과 모음구성알기

※책 제목의 \*\*표시는 보육활동자료집에서 선정하였음

###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9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20주 동안 주 1회에서 2회씩 만 3세, 만 4세, 만 5세 유아에게 총 20회 그림책 활동을 실시하였다. 교사들은 그림책 활동 실시 과정 매 회기에 반성적 저널을 작성하였다. 유아교육현장 및 대학 강의 경력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은 교사들에게 반성적 사고 및 저널쓰기에 대해 사전에 2회 총 6시간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매주 1회 교사들의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반성적 저널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기록한 내용, 관찰한 내용이나 경험한 내용의 의미를 찾아 기록한 내용, 관찰하고 경험한 내용을 통하여 자신이 학습한 기록 내용에 대해서도 공유하며 발표, 토론 과정을 가졌다. 또한 교사들과 사회적 유능감의 개념과 중요성, 구성요인에 대한 이론적 내용, 구성요인인 정서성, 정서조절, 대인관계기술, 사회적 지식 이해로 구분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평가척도(이혜원, 2005)를 통해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과정을 가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반성적 저널 기록 내용 중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구성요인에 해당하는 기록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가졌다.

### 4. 자료 분석

교사의 반성적 저널을 통해 나타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살펴보기 위한 질적 연구 자료를 제시하고자 반성적 저널에서 사회적 유능감의 요인인 정서성, 정서조절, 대인관계기술, 사회적 지식이해에 따른 저널의 사례를 분류하여 추출하였고, 변인별로 추출되어진 저널 속 텍스트의 내용을 해석 및 분석하였다.

분석 시 나타날 수 있는 주관적인 해석을 줄이기 위해 유아교육 현장경력 15년 이상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두 연구자와 교사들은 기록된 저널을 함께 읽으면서 저널 속에서 교사들이 무엇에 대해 반성적 사고를 하였는지를 찾았으며, 교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관점에서 기록하였는지 토론하였다. 연구자들은 결과 해석이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에 대한 내용에 부합되었는지, 간주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정도의 개연성과 보편성을 확보한 해석결과가 되었는지 검토하는 과정(member check)을 거쳤으며 저널 분석과 수업 비디오로 재검토하며 토의, 수정과정을 통해 자료 분석에 대한 공감적인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Ⅲ. 연구결과

보육교사의 반성적 저널을 통해 나타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결과를 사회적 유능감의 구성요인인 정서성, 정서조절, 대인관계기술, 사회적 지식이해에 대한 해석 및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은 만 3, 4, 5세반 교사의 저널을 통해 나타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요인인 정서성과의 관계를 해석, 분석한 내용이다.

#### 1. 자신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유아

그림책 표지의 제목을 하얀 종이로 가리고 그림만 보여주었다. 그림을 보고서 ‘누가 내 머리에 똥 샀어’라고 제목을 이야기 하는 유아들이 있었다. 그림책 D이야기를 듣고 난 후 ‘똥 모형’을 보여주며 그 느낌을 함께 이야기 해 보았다. 실제로 똥 모형을 몇몇 유아들의 머리위에 올려보니 얼굴을 찡그렸으며 민혁이 경우는 “민혁이 머리위에 똥이 떨어지면 어떤 기분일까”하고 머리 위에 올려보려고 하니 고개를 흔들며 “싫어요”하였다. 활동지를 주고 ‘만약 내 머리에 똥이 떨어졌다면’ 어떤 기분일지 자신의 얼굴 표정을 그려보게 하였다. 곰곰이 생각하여 얼굴을 그리는 유아들도 있고, 바로 그림을 그려가는 유아들도 있었다. 그림을 봐서는 얼굴 표정을 알아보는 것은 어려웠지만 그림으로 표현한 내용을 언어로 표현해 보게 하였다. 그림책에서 등장하는 똥에는 관심을 보이고 즐거워하였으나 활동이 끝난 후 똥 모형 가까이 가서 탐색하거나 만져보려고 하는 유아들은 없었다. (만 3세반 교사 6회기 저널 중에서)

유아들은 괴물, 도깨비, 똥, 방구 등의 표현이 나오면 그 어휘 자체를 재미있어 하고 흥미와 관심을 표명한다. 그림책 ‘누가 내 머리에 똥 샀어’의 내용은 작은 두더지 머리에 갈색의 똥이 첩퍼덕 떨어져 이 똥의 주인공을 찾아 나서 복수를 하는 것이기에 유아들의 머리에 똥이 떨어진다는 상상은 당연히 유쾌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편적으로 똥은 냄새나고 더러운 것으로 여겨지나 유아들이 즐거운 배변 훈련을 했다면 똥은 내 몸 안에서 밖으로 배출된 또 다른 자아로 여길 수 있으며, 배변을 하고 난 후의 개운함으로 인해 똥 자체는 냄새가 나서 싫지만 똥에 관한 정서는 즐거울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다. 유아의 정서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갖는 경험에 반응하는 정신적 혹은 성격적 방식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지속적이고 독특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정서적 행동이다. 교사의 반성적 사고의 저널을 통해 유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책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에 관한 활동시간이다. 유아들은 그림책의 그림보다는 ‘도깨비’라는 단어를 더욱 좋아하였다. 아무래도 도깨비는 추상적인 등장인물이기에 유아들이 상상 하는 데 있어 즐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유아들에게 제목을 읽어주고 그림책 제목의 색깔을 보며 어떤 느낌이 드는 지 이야기 하니 무서운 느낌이 든다는 이야길 하였다. (중략) 표지 꾸미기를 끝내고 유아들이 고대하던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되었다. 읽고 난 후 어떤 점이 가장 즐거웠냐는 질문에 도깨비를 빨아버렸더니 얼굴이 없어진 점이 가장 즐거웠다고 하였다. 동화책 그 후엔 어떻게 되었을 까라는 질문에는 세상 모든 도깨비가 예뻐졌을 것 같다는 대답을 하였다. (만 4세반 교사 1회기 저널 중에서)

유아들이 좋아하는 동화나 그림책에 자주 등장하는 괴물이나 도깨비는 아무래도 유아들에게 친숙한 대상이다. 그림책을 통해 보고 들었던 익살스럽지만 친근한 도깨비를 상상하는 자체는 즐거운 일이지만 흑이 달리고 울퉁불퉁한 도깨비, 괴물의 모습은 유아들에게는 무서운 정서를 갖게 한다.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이야기는 빨래를 너무 좋아하는 엄마가 있었는데 무엇이든 다 빨아버린다. 어느 날 천둥도깨비가 널려있는 빨래 줄을 보고 금방망이, 은 방망이가 있는 줄 알고 찾으러 왔다가 엄마와 실랑이를 하다가 도깨비를 빨아버린다. 빨려진 도깨비는 너무도 기분이 좋아져 다른 도깨비들도 모두 데리고 와서 빨아달라고 부탁한다는 이야기다. 엄마에게 빨아달라고 부탁하는 이 그림책의 도깨비는 무서움의 대상이 아닌 생활 속의 도깨비이기에 그로 인해 유아들은 도깨비가 언제 나오는지 등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유아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서로 양극단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독립된 차원으로 이해해야할 것이다. 교사의 반성적 사고의 저널을 통해 유아들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의 자신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책 ‘구리와 구라의 헤엄치기’를 듣고 유아들과 구리와 구라가 배우게 된 헤엄의 종류를 생각해 보았다. 미리 준비한 주사위에 헤엄의 종류를 붙이고 주사위를 던져서 유아들이 신체로 표현해 볼 수 있는 활동이 이어졌다. 유아들의 신체표현은 제각각 이었다. 조용한 아이들은 소극적으로, 발표력이 있는 아이는 적극적으로, 쑥스러워하며, 신나고 즐거운 웃음을 지으며 다양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들이 갖고 있는 성향과 정서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표현이 작거나 단순히 손만 이용해서 헤엄치는 표현을 한 유아들이 많아 조별로 의논하여 함께 표현해 보게 하였다. 조별활동을 하니 표현을 하지 않은 아이들도 혼자 하지 않으니 부끄럽거나 쑥스러운 모습이 줄어들었으며 신체 전체를 이용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다 같이 웃으며 활발한 시간이 되었다.

(만 5세반 교사 3회기 저널 중에서)

그림책을 들고 구리와 구라의 해엄 종류가 붙여진 주사위를 던져 신체로 표현해보는 활동은 유아들이 각자 갖고 있는 정서성을 자연스럽게 표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평소 소극적이고 조용한 유아들, 새침하고 소심한 성격으로 생각했던 유아들, 쉽게 흥분하며 불끈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한 유아들, 성격이 급한 유아들, 평소 잘 웃고 표정이 밝은 유아들에게 이러한 동작이나 신체표현의 활동은 그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정서성을 나타내준다. 그림책을 활용한 언어교수방법을 통해 부끄럽거나 쑥스러운 모습의 유아들도 다른 친구들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며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사의 반성적 사고 저널을 통해 유아들이 지닌 각각의 정서성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배워질 수 있는 사회적 유능감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만 3, 4, 5세반 교사의 저널을 통해 나타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요인인 정서 조절과의 관계를 해석, 분석한 내용이다.

## 2. 공감과 감정이입으로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유아

그림책 ‘내 귀는 짹짹이’의 겉표지를 펼쳐 보이며 주인공 토끼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한 후 동화를 들려주었다. 책장을 넘겨가며 주인공 리키는 다른 토끼들과 생김새가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하고 리키가 한 쪽 귀를 세우기 위해 당근을 끼워보거나 나뭇가지를 넣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행해 보는 내용의 그림에서는 모두들 웃음을 자아내 보였다(중략). 하지만 리키가 짹짹이 귀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 고민하고 슬퍼하는 내용에서는 리키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유아들도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다.(중략)

(만 3세반 교사 7회기 저널 중에서)

만 3세의 유아들은 그림책 속의 주인공 루키가 되어 짹짹이 귀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 고민하고 슬퍼할 때는 함께 슬픈 표정이 되어 슬퍼하고 속상해 하였다. 이러한 유아들의 모습은 주인공 루키의 마음을 인식하고 공감과 감정이입 적으로 반응하는 타인인식능력을 말한다. 주인공 루키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인 공감은 ‘사람을 사귀는 기술’의 기본이다. 또한 짹짹이 귀를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당근과 나뭇가지를 끼워 넣는 그림과 내용에서는 재미있어 모두들 킁킁대며 웃음으로 응답하였다. 그림책을 활용한 교사의 반성적 저널을 통해 유아들은 자신의 감정, 기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표정이나 행동을 상황에 맞게 나타내며 자기의 정서를 조절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유능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책 ‘구리와 구라의 헤엄치기’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헤엄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바다아이가 구리와 구라에게 자신을 찾아오라며 보냈던 지도와 같이 교실을 그려 넣고 카드 찾기를 하였다. 카드를 찾으며 카드에 쓰여진 헤엄치기 방법을 음악과 함께 표현해보기로 하였다. 팀은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서로 토론을 통해 지도를 뽑고 의논을 하기로 하였다. 토론과 의논이 낫선 지 이야기 하지 못한 채 쭈뼛 쭈뼛한 모습을 보이며 의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론이라는 주제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교사의 적절한 개입으로 지도를 뽑으니 유아들은 쉽게 카드가 숨겨진 곳으로 가서 카드를 찾았다. 보물찾기 같은 카드 찾기 게임에서는 흥분을 하였고, 팀 별로 음악과 함께 헤엄을 쳐보는 신체표현 활동은 다소 쑥스러워 하기도 하였지만 신나게 웃으며 즐거워하였다.

(만 4세반 교사 3회기 저널 중에서)

교사는 ‘구리와 구라의 헤엄치기’ 그림책에 나오는 게, 고래, 돌고래, 나비, 해파리, 개구리, 넙치의 다양한 헤엄치기 방법을 사진자료를 통해서 보여준 후 음악을 듣고 신체로 표현해 보는 활동을 준비하였다. 팀별로 인원을 구성한 후 서로 각자의 의견을 내 놓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의 협동학습을 해야 한다. 어떤 지도를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지도를 선택할 것인가, 숨겨진 지도를 찾고 카드에 제시된 헤엄방법을 어떻게 신체 표현할 것인가 등에 대해 서로 생각을 모으고 표현해야 하므로 팀 구성원의 언어, 신체 표현에 공감과 감정이입을 해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유아들끼리의 팀별 활동은 친구와의 소통을 필요로 하기에 특별히 자기조절능력과 타인조절능력을 필요로 한다.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사회적 상황과 요구에 적합하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여 표현하는 능력으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이다(Parker & Asher, 1987). 자신의 정서에 대한 신체표현이 팀 친구들과 다르더라도 자신의 정서를 타인의 정서에 조절하며 한편으로는 다소 쑥스럽기도 하였지만 공감과 감정이입을 하며 팀원들과의 관계형성을 위해 신나게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책 ‘색깔을 훔치는 마녀’를 읽어주고 자신이 좋아하는 색과 그 이유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이 좋아하는 색을 말하고 이유는 단순하였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씩씩하게 말하는 유아들이 보기 좋았다...(중략)... 유아들과 무지개 색 7가지를 2명씩 짝을 이뤄 잡지에서 오린 색을 붙이기로 하였다. 남색은 지원자가 많지 않았고 빨간색에 대한 지원자는 무려 6명이나 되어 유아들과 상의한 끝에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이긴 사람이 빨간색을 하기로 하였다. ‘가위 바위 보’에서 진 유아들은 자신이 진 것에 대해 순응 하며 다른 색을 선택하는 모습이 무척 자연스러웠다. 짝을 이뤄 잡지를 찾아보고 자신의 색이 아니어도 다른 친구들의 색을 찾아주기도 하며 글자를 색으로 입혀보았다. 유아들이 예상보다 짧은 시간 안에 잘해 주어 한편으로 유아들의 발달에 놀라기도 하였다. (만 5세반 교사 10회기 저널 중에서)

그림책을 보고 짧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색과 이유에 대해 씩씩하게 표현하는 것은 그림책의 이야기를 통해 느끼는 자신의 감정, 기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자기의 정서를 조절하며 언어로 표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비록 내가 좋아하는 색은 아니지만 ‘가위바위보’라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진 사항에 순응하며 활동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조절하며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아들의 자기조절 능력이 표출되어 있다. 또한 또래집단에 대한 이러한 개인의 행동은 사회적 지식과 정서조절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자신의 색이 아니어도 다른 친구들의 색을 찾아주는 행동은 만 4세 유아들의 암묵적 의사소통을 통한 대인관계기술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대인관계능력과 관련된 유아들의 타인조절능력으로 타인의 감정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사회적 유능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음은 만 3, 4, 5세반 교사의 저널을 통해 나타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요인인 대인관계기술과의 관계를 해석, 분석한 내용이다.

### 3.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며 관계 능력을 형성하는 유아

(중략)그림책 ‘까만 네리오’를 듣고 네리오 처럼 유아들도 각자가 가진 재능이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먼저 교사는 수빈이를 칭찬해 주었다 “수빈이는 인사를 참 잘해요, 강당이나 식당, 계단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수빈이를 칭찬해 주고 싶어요”라고 하고 수빈이는 다현이를, 다현이는 민혁이를....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친구들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해 주는 활동시간이 되었다.

(만 3세반 교사 9회기 저널 중에서)

그림책 ‘까만 네리오’는 알록달록 멋진 형들과는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을 만큼 검기 때문에 형들이 놀아주지 않아 늘 쓸쓸하게 혼자 논다. 까만 네리오는 새장에 갇혀있는 형들을 까만색으로 한밤중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장점을 살려 구출해내어 그 후 형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된다는 이야기다.

책을 듣고 교사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발견하여 서로 칭찬해 주는 시간을 갖게 계획하였다. 먼저 교사는 유아를 칭찬하는 모델링을 보임으로써 유아의 정서를 건설적으로 조절하여 사회적 유능감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만 3세 유아에게 모델로서의 교사는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말과 행동을 유아들에게 보여주며 친사회적 기술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 갖고 있는 좋은 점은 다르지만 이를 통해 서로를 격

려하며, 타인에 대해 따뜻하고 긍정적이며 지지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능력을 증진시키고 원만한 대인관계기술을 형성하게 하여 사회적 유능감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림책 ‘동강의 아이들’을 읽어주기 전 책 속에 숨은 그림이 있으니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고 이야기 한 후 책을 읽어 주었다. 유아들은 책장을 넘길 때마다 아기 곰, 큰 새, 엄마, 아빠, 공룡 등의 숨은 그림을 찾으며 신기해하였다. 숨은 바위그림을 찾을 때는 서로 자신이 생각한 바위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지만 타인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음과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중략)...책에 숨겨진 그림을 찾으며 글의 내용뿐 아니라 책의 그림을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찾아보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유아들도 자신의 시각 뿐 아니라 타인의 시각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만 4세반 교사 4회기 저널 중에서)

그림책을 들은 후 그림책 안의 숨은 그림을 찾으며 각자의 생각이나 시각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는 바위의 모습에 대해 유아들 간의 갈등이 벌어졌다. 그림책을 통해 제공된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유아에게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과 협상을 통하여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생각의 차이는 틀림이 아닌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는 서로를 존중해 주는 모습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로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며 숨겨진 그림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찾아 볼 수 있도록 제안하여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교사의 모습에서 유아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렇듯 또래끼리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의 상호성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있어야 하며 생각이 다른 타인과의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유능감이란 서로에 대한 호혜적이며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능력, 사회적 이해와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에 따라 좌우된다. 그림책을 활용한 교사의 반성적 저널을 통해 유아들이 또래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술을 배우며 대인관계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 귀는 짹짹’ 그림책은 리키라는 토끼의 귀는 다른 친구 토끼들의 귀처럼 좋게 서 있지 않고 오른쪽 귀가 축 늘어져 짹짹 하는 놀림을 받는다. 그래서 리키는 귀를 세우려고 당근도 끼어보고, 나뭇가지를 끼어보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았지만 귀는 좋게 서지 않



았다. 친구들은 리키의 마음을 이해하고 모두들 당근을 귀에 매달아 리키처럼 똑같이 한 쪽 귀를 누워있게 만드는 내용이다. (중략) 동화를 듣고 ‘내가 만일 리키라면 어떤 마음이었을 까?, 리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질문에 표현해 보는 활동을 하였다. ‘리키가 불쌍해요, 속상 했을 거예요, 도와줘요 리키가 다른 친구토끼와 달라 슬퍼요,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등 다양한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였다. 리키에게 편지쓰기 활동에서는 유아들의 생각은 리키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에 대해 표현했다. ‘친구를 속상하게 하지 말아요.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아요, 놀리지 않을 거예요. 도와주어요, 장난감을 나누어 주며 같이 놀아요, 같이 손잡아 줘요, 안아줘요, 슬퍼하지 말라고 해요, 놀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해 요’ 등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였다. (만 5세반 교사 7회기 저널 중에서)

교사는 그림책 연계 활동으로 ‘내가 만일 리키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라는 활동으로 유아들에게 짹짹 귀로 인해 친구들부터 놀림을 받고 고민하는 주인공 리키의 마음을 인식하고 그 마음을 자기의 정서에 감정이입하여 타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리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알고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하였다. 또래관계는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래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상호작용은 대인관계기술을 증진시킨다. 유아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학습한 사회적 지식인 ‘친구를 속상하게 하지 말아요.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아요, 놀리지 않을 거예요. 도와주어요, 장난감을 나누어 주며 같이 놀아요, 같이 손잡아 줘요, 안아줘요, 슬퍼하지 말라고 해요, 놀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요’를 또래관계와 우정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활용하였다. 또래들과 잘 지내기 위한 유아들의 친사회적인 생각들은 결국 사회적 지식을 통한 대인관계기술에 대한 전략들이며 이를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유능감을 높이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만 3, 4, 5세반 교사의 저널을 통해 나타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요인인 사회적 지식이해와의 관계를 해석, 분석한 내용이다.

#### 4. 사회적 구성원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수용하는 유아

추석을 맞아 ‘술이의 추석 이야기’ 그림책을 듣고 ‘가, 추, 위, 석, 송, 편’글자를 제시하고 이 중에서 ‘추석, 송편’ 글자와 똑같은 글자를 찾아서 오린 후 붙여 보도록 하였다. 아이들은 가 위와 풀, 도구를 사용하여 활동을 한다는 것에 흥미를 보였다. 가위질이 아직 서툴러서 가위로 오리다가 끝에 조금 남겨진 종이부분은 손으로 뜯어내기도 하고 글자의 반을 오려서 글

자의 형태가 잘 보이지 않은 것들도 있었고, 송편을 편송으로 붙이기도 하였다.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음에도 활동이 끝난 후 가위, 풀, 종이 부스러기, 의자를 스스로 제자리에 정리하며 마무리 하는 모습을 보니 약속 또한 잘 지키는 아이들이 자랑스러웠다.

(만 3세반 교사 17회기 저널 중에서)

추석에 관련된 그림책 이야기를 듣고 교사는 이야기 속에 나왔던 글자와 똑 같은 글자를 찾아 종이에 붙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만 3세 유아들에게는 글자를 인식하게 하는 활동 이라기보다 글자형태를 보고 풀, 가위, 종이를 사용하여 글자를 오려내고 붙여 보는 활동 만이라도 도전을 주었을 것이다. 만 3세 유아들에게 같은 글자를 찾아 그것을 오리고 붙이는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활동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친구들과 서로 돕고 협력하며 주도성을 갖고 자발적으로 주변을 정리함으로써 교실에서의 약속인 사회적 규칙을 지키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만 3세의 어린 유아들에게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즐거운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한 사회적 지식 이해는 생활 속의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경험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아들에게 사회적 지식의 이해는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차례를 지켜야 될 때, 허락 없이 남의 물건을 사용했을 때 자기중심적인 사고나 행동이 차츰 줄어들고 원만한 상호작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규범을 배워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림책 활동 후 정리 역시 활동 속의 활동으로 만 3세 유아들이 또래와의 활동 속에 잘 참여하면서 사회적 유능감을 키워 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림책 ‘까만 네리오’ 내용 중에는 여러 인종에 대한 동시가 들어있다. 동시를 읊어주려는 데 민솔이가 손을 들더니 자신도 글을 읽을 수 있다며 자신이 읽게 해달라고 말하였다. 민솔이는 더듬더듬 글자를 틀리게 읽기도 하여 시간이 걸리긴 하였지만 친구들은 민솔이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며 호뭏하였다. (중략) 유아들이 피부색이 다른 세계인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활동을 할 때마다 다소 산만했던 민솔이가 그림책 이야기에 집중하고 발표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또한 이야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는 줄고 다른 친구들이 발표할 때면 자신의 순서를 기다릴 줄 아는 민솔이의 모습이 자랑스럽다.

(만 4세반 교사 9회기 저널 중에서)

그림책 ‘까만 네리오’ 는 피부색이 다른 세계인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모두는 존중받아야 된다는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지식과 이해를 돕는 이야기이다. 까만 네리오’ 그림책의 내용은 유아들에게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 협의 과정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한다. 특히 민

솔이의 더듬거리는 동시를 다 읽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고 들어준 친구들의 모습에서 대인관계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타인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반응을 인지하고 예견하는 능력이 사회적 지식 이해 능력이다. 또래와의 관계에서는 또래집단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협동심이나 타협을 필요로 한다. 기다리고 참고 도와주고 나누어 주고 양보하기 등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기중심적인 사고나 행동은 줄어들고 점차 사회구성원으로서 성공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규범을 배워나가게 된다. 그림책을 활용한 교사의 반성적 저널을 통해 유아들은 이러한 사회적 지식을 이해하며 이것을 토대로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이다. 아이들에게 한글날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세종대왕과 한글’에 대한 그림책을 소개했다. 우리나라 돈, 지폐를 통해 세종대왕을 유추하여 한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게 하면서 글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중략) 마침 한글을 조금씩 알기 시작한 상현이는 자음과 모음 공부를 진행할 때 집중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한글을 어느 정도 뻔 유아는 흥미가 지속적이지 않은 듯 보였지만 계속 유아들을 관찰하면서 특히 글을 잘 모르는 시영, 승연, 상혁이의 반응을 살피며 활동하였다. 한글날과 세종대왕에 관한 그림책을 통해 다른 때 보다 글이 만들어지는 과정, 글의 기초 개념에 관심을 보이며 집중력 있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음과 모음을 이용한 글자 만들어 신체로 표현하기, 제시하는 문자를 친구와 함께 협력하여 신체로 표현해 보는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만 5세반 교사 20회기 저널 중에서)

유아의 그림책은 여러 가지 조망이 부족한 유아들에게 어떤 상황을 적절히 체험하게 해준다. 한글날을 맞아 한글과 세종대왕에 대한 위인전 그림책을 통해 유아들이 글자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교육적 접근은 글자를 조금 알거나, 전혀 모르는 만 5세 유아에게 글이 만들어지는 과정, 글의 기초 개념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유아들은 자신의 글자인식이라는 사회적 지식 이해에 대한 문제가 교사에 의해 조력 받고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자모음을 이용하여 글자를 만들어 보고, 친구와 함께 신체로 표현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사회적 유능감이란 유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에 대한 정체감과 안정성을 가지고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생각과 경험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교사의 반성적 저널을 통해 나타난 유아의 사회적 지식 이해를 돕는 이러한 경

힘이 증가 될수록 유아들은 이후에 직면하게 되는 여러 또래와의 관계나 문제해결 상황에서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자신감 있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 여겨진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반성적 저널을 통해 나타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그림책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 A시에 위치한 G어린이 집 만 3, 4, 5세반 교사 3명과 유아 47명이다. 교사들은 20회기에 걸쳐 유아들과 그림책 활동 과정에서 매회기 반성적 저널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수업에 피드백하게 하였다. 수집된 반성적 저널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요인인 정서성, 정서조절, 대인관계기술, 사회적 지식이해에 해당하는 저널을 분류, 텍스트 내용을 추출하여 질적으로 해석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라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구성요인 중 정서성의 결과를 보면 만 3세 유아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4세 유아들은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이야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서를 자연스럽게 나타내 주었다. 만 5세 유아들은 자신의 신체로 각자 갖고 있는 자신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소극적이고 부끄러워하는 유아들은 친구들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며 변화되는 것을 보고 유아들이 지닌 각각의 정서성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배워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반성적 저널을 통해 사회적 유능감의 구성요인 중 정서성에 있어서 유아들은 자신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의 정서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갖는 경험에 반응하는 정신적 혹은 성격적 방식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지속적이고 독특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정서적 행동이다. 유아들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서로 양극단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독립된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 부정적 정서를 높게 나타내는 유아가 긍정적 정서도 높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구성요인 중 정서조절의 결과를 보면 만 3세 유아들은 타인의 상황에 함께 슬퍼하고 속상해 하는 타인 정서인식의 모습을 통해 사람을 사귀는 기술의 기본적 능력인 공감이라는 긍정적인 사회적 유능감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4세 유아들은 서로 생각을 나누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5세 유아들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

어진 상황에 순응하며 자신을 이해, 수용, 조절하며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로써 반성적 저널을 통해 사회적 유능감의 구성요인 중 정서조절에 있어서 유아들은 공감과 감정이입으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사회적 상황과 요구에 적합하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여 표현하는 능력으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인이다(Parker & Asher, 1987).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유아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줄 알고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유능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정서조절능력은 사회적 유능감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유능감의 영향을 받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구성요인 중 대인관계능력의 결과를 보면 만 3세 유아들은 서로 갖고 있는 좋은 점은 다르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따뜻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대인관계능력과 기술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4세 유아들은 각자의 생각이나 관점에서 오는 갈등 상황에 대해 협상하는 사회적 기술을 배우면서 서로를 존중해 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만 5세 유아들은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알고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대인관계능력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반성적 저널을 통해 사회적 유능감의 구성요인 중 대인관계에 있어서 유아들은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통해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대인관계능력을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유아들의 대인관계기술인 친구를 사귀는 기술, 놀이를 시작하는 기술, 놀이를 지속하고 발전시키는 기술, 협동하는 기술,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기술은 또래관계에서 중요한 관건이 된다(Katz & McClellan, 1997). 이런 기술이 있는 유아를 또래 간에 유능하다고 하거나 일반적으로 사회적 유능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구성요인 중 사회적 지식이해의 결과를 보면 만 3세 유아들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친구들과 돕고 협력하며 주도성을 갖고 자발적으로 주변을 정리하며 사회적 규칙을 배워 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만 4세 유아들은 자기중심적 사고와 행동으로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규칙을 무시하는 친구가 사회구성원으로 필요한 기술이나 규범을 배워 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반응을 인지하고 예견하면서 사회적 지식이해 능력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만 5세 유아들은 글자 인식이라는 사회적 지식이해에 관한 경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 후에 직면하게 되는 또래관계나 문제해결 상황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자신감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로써 반성적 저널을 통해 사회적 유능감의 구

성요인 중 사회적 지식이해에 있어서 유아들은 친구들을 사회적 구성원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격려하며 변화해 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유아들의 사회적 지식이해는 또래 상호작용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예견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이 겪는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 지를 미리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와의 활동에 적절히 참여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게 되며 또래문화의 사회적 규칙과 규준에 대한 지식과 기본적 언어를 습득함으로써 유아는 또래의 활동 속에 잘 참여하고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 및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저널쓰기에 대한 연구로, 교사들은 반성적 저널을 작성하며 자신의 수업을 돌아보고 유아들과의 상호작용의 문제점을 고민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교사 자신이 계획한 활동에 유아들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교사 자신의 변화를 모색하는 선행 작업이었다. 저널쓰기는 일단 글로 저장된 교사의 생각을 언제든지 다시 꺼내어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의 변화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반성적 사고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반성적 저널쓰기가 교사 스스로 자기 반성적 사고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며, 반성적 사고능력을 증가시킨다는 여러 연구결과(김호, 서선진, 2009; 이영석, 이세나, 2004)와도 일치한다. 또한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에 대한 장학에서 개방적 태도, 적극적 수용과 인정의 자세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Dewey(1986)가 반성적 사고를 시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반성적 사고 능력은 실제로 향상 되어 진다는 주장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교사들은 저널을 쓰면서 이론과 실재를 연결하여 생각해 보는 경험과 저널을 분석하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저널의 기록된 글을 읽는 과정에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용을 파악하게 되어 전에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던 이론 및 실제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토의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저널을 통해 자신이 관찰하고 경험한 저널 기록 내용을 서로 공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며 상호작용이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었다. 저널은 유아교사들이 자신의 실천 행위에 대해 개인적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는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를 의미하며 타인과의 담론을 통해 교수 학습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글로 저장된 교사의 생각은 언제든지 다시 꺼내어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의 변화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교육적 의의가 있다. 따라서 저널쓰기가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교사의 질적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실천되길 기대해 본다.

둘째, 본 연구는 그림책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질적 연구로 유아들은 그림책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등장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감정이입, 공감을 느끼며,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책이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적 기술들을 배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림책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 경험과 정서조절, 사회적 지식이해, 대인관계기술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었다. 이는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 이야기, 문학 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 개인의 정서조절능력, 대인관계형성능력, 유치원 적응능력 등 사회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양적 연구결과(김중순, 2012; 오윤주, 2009; 이찬숙, 조정선, 현은자, 2011)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유능감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요인에 대한 다양한 배경과 문제를 다룬 그림책을 통해 유아들은 자신의 상황과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책 속의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유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자신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유능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오랜 시간을 보육현장에 있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그림책을 접하게 하고 그에 따른 그림책 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효과적인 교수 학습방법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최근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은 언어를 통해 표현되며(Cassidy, Werner, Rourke, Zubernis & Balaraman, 2003),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하는 유아들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활발한 것(Cole, Usher, & Cargo, 1993)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앞으로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언어능력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다양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안한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만 3, 4, 5세 학급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교사와 유아의 개별적인 활동에 대한 저널을 기록, 분석하지 못한 점과 그림책 외의 활동에서 유아들 간의 사회적 관계 경험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볼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개별 유아에 대한 교실 상황에서의 저널쓰기와 동료교사, 학부모의 평가 등을 통해 심층적이고 면밀한 비판적 분석과 반성적 교사교육의 결과가 교사 및 유아들의 교수 실제와 교수 활동 전반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 김경중(2003). **유아교육과 아동문학**. 신아출판사.
- 김중순(2012). 유아의 독서프로그램이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효과. 가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 호, 서선진(2009). 예비유아교사의 반성적 저널에 나타난 창의성 교육에 대한 인식분석

-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5), 205-227.
- 박은혜(1999). 유아교사교육에서 저널쓰기 활용에 대한 고찰. **한국교사교육**, 16(2), 195-216.
- 석은조(2006). 저널 쓰기가 예비 유아교사의 반성적 사고수준 향상에 미치는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14), 373-396.
- 성은영(2006). 반성적 사고중심의 발문 개선교육 과정에 나타난 교사의 발문변화.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혜준(2010). 유아교사의 반성적 정서 저널쓰기 과정의 의미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4(4), 287-314.
- 염연정(2009). 글 없는 그림책을 활용한 협동적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및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운주(2009).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석, 이세나(2004). 유아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소고: 반성적 사고를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4), 229-254.
- 이완희(2008). 반성적 저널쓰기 경험이 유아 초임교사에서 주는 의미. **인문과학연구** 16, 133-158. 안양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우영(2007). 유치원에서의 그림책 활용에 대한 실태분석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화, 배소연, 조부경(2000). **유아교사론**. 서울: 양서원.
- 이찬숙, 조경선, 현은자(2011). 정보 그림책 혹은 이야기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 프로그램이 유아의 쓰기능력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67, 167-191.
- 이혜원(2005). 교사용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평가척도 개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경심(2009). 유치원 교육실습에서 반성적 저널쓰기가 예비교사의 교육신념 및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수란, 황해익(2007). 유아교사의 반성적 사고 경험을 통한 교수행동의 변화. **열린유아교육연구**, 12(2), 161-183.
- Austin, E. J., Farrelly, D., Black, G., & Moore, H. (2007). Emotional intelligence, Machiavellianism and emotional manipulation: Does EI have a dark sid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 179-189.
- Bain, J. D., Ballantyne, R., Packer, J., & Mills, C. (1999). Using journal writing to enhance student teachers' reflectivity during field experience placements. *Teachers & Teaching*, 5(1), 51-74.
- Brackett, M. A., & Mayer, J. D. (2003). Convergent, discriminant, and incremental



- validity of competing measures of emotional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1147-1158.
- Cassidy, K. W., Werner, R. S., Rourke, M., Zubernis, L. S., & Balaraman, G.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understanding and positive social behaviors. *Social Development*, 12, 199-221.
- Cole, P. M., Usher, B. A., & Cargo, A. P. (1993). Cognitive risk and its association with risk for disruptive behavior disorder in preschooler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2, 154-164.
- Dewey, J. (1986). **사고하는 방법**. (임한영 옮김). 서울: 범문사(원판 1933).
- Hartup, W. W. (1991). *Having friends, making friends and keeping friends: Relationships as educational context. Early Report*. Minneapolis, MN: Center for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University of Minnesota.
- Katz, L. G., & McClellan, D. E. (1997). Foster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teacher's role*. 8(1), NAEYC Research into Practice Series.
- Kerka, S. (1996). *Journal writing and adult learning*. ERICED 399-413.
- Lafreniere, P. J., & Dumas, J. E. (1995).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 preschool edition(SCBE)*. Los Angeles,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McAlpine, L. (1992). Learning to reflect: Using journals as professional conversation. *Adult Learning*, 3(4), 15-24.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acceptance and later adjustment;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ellegrini, A. D., & Bjorklund, D. F. (1998). *Applied child study: A developmental approach*, Mahwah, NJ: Lawrence Erlbaum.
- Schickedanz, J. (1990). *Adam's righting revolutions: One child's literacy development from infancy through grade one*. Portsmouth, NH: Heinemann Educational Books, Inc.
- Surbeck, E., & Han, E. (1993). Becoming a child sensitive teacher: Cal journal Writing help.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0(2), 2-9.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ocial efficacy of children shown in reflective journal writing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focusing on picture book activities. The subjects were 47 3, 4 and 5 year old children in G Child Care Center in the Capital Area. Teachers were asked to do 20 picture book activities and to write a journal according to reflective thinking after each picture book activity. Through the reflective journals collected, this study attempted to interpret and analyze them qualitatively by classifying the journals and yielding text contents according to factors for children's social efficacy such as emotionality, emotion control,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chnique, and social knowledge understanding.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children expressed their emotion naturally and that they learned their unique emotionality while they lived together with their friends. Second, it was found that children perceived and controlled their own emotions by using their sympathy and empathy. Third, it was found that children recognized and accepted that they are different rather than the counterparts are wrong through their differences in each other's thoughts to compose the cap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urth, it was found that children improved themselves by their understanding, respecting and accommodating their friends as members of society.

▶*Key Words* : *reflective journal writing, social efficacy, picture book activities*

논문투고	2013. 04. 15.
수정원고접수	2013. 08. 01.
최종게재결정	2013. 08. 17